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Bernard Malamud의
*The Assistant*에 나타난 자아실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수연

Bernard Malamud의
*The Assistant*에 나타난 자아실현

Self-realization in Bernard Malamud's *The Assistant*

2011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수연

Bernard Malamud의
*The Assistant*에 나타난 자아실현

지도교수: 최 기 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수연

이수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최한용교수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강정석교수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최기균교수

201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I. 서 론.....	1
II. 주요인물의 성격분석.....	6
A. Morris Bober의 고난의 가치.....	6
B. Frank Alpine의 자아완성.....	19
III. 결 론.....	36
참고문헌.....	39

ABSTRACT

Self-realization in Bernard Malamud's *The Assistant*

Yi Su-yeon

Advisor : Prof. Choi Ki-goon,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self-realization of the main characters in Malamud's *The Assistant*. Lack of trust among people and materialism was rampant in the 20th century. The literature was influenced by this. Nevertheless, Jewish American writers insisted that people should pursue humanism and future-oriented values, so they dealt with the themes of people's inner worlds.

Bernard Malamud, the Jewish American writer, was under the influence of American romanticism as well as Jewish traditional literature, and even though his characters are Jewish, they represent all men. He has been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Jewish American writers. Because Malamud felt that modern society was too materialistic and individualistic, he pursued the theme of moral growth through suffering and moral living in his writing. He claimed that human beings were innately good. In his works, he used the archetype of *Schlemiel-Schlimazel* for his main characters. These characters always undergo suffering in their lives and through it develop their identity.

In *The Assistant*, Malamud's second novel, he deals with this moral theme clearly. Malamud claims that suffering is inherent in his characters achieving

self-realization. *The Assistant* has two main characters: one is Morris Bober, a Jew who owns a grocery, and the other is Frank Alpine, his Italian assistant. Through the lives of Morris Bober and Frank Alpine, Malamud develops his theme that men can change their lives if they accept their suffering. Morris Bober sacrifices his life for his family, and he endures his suffering without any complaint. Despite his suffering, he has a strong sense of morality, so he is charitable to his neighbors. He adheres to his Jewish faith even though it seems that no one else in his family understands his moral beliefs.

In the beginning of the work, Frank is a burglar without any conscience, and he thinks money means success in life, so he goes through much suffering. At last, he realizes true morality through Morris' sacrifice and Helen's love, and he transforms himself. After Morris' death, he devotes himself to Morris' family. Acting like a foster son, he becomes the family savior.

In conclusion, Malamud uses his characters to express moral growth through suffering. He emphasizes that people accept and endure suffering in their lives, so they can acquire morality. Through his novel, he suggests that modern man should aim for moral growth in order to reach self-realization.

I. 서 론

20세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폭력과 불신, 물질 만능주의와 비인간화가 만연한 시기였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정신문화 결핍으로 인해서 가치관의 혼란과 소외감에 빠져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문학의 대체적 흐름은 허무주의와 도피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에 유대계 작가들은 민족적 소외감을 통해 개인의 심리와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깊이 조명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넓혀갔다. 대표적인 유대계 작가들은 Bernard Malamud, Saul Bellow, Philip Roth, J.D Salinger, 그리고 Norman Mailer등이다. 1950년 이전에 그들은 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미국사회가 유대인의 수난과 고통에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들의 작품에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긍지를 가짐으로써 소위 The Jewish Movement를 일으켰다. 이러한 작가들은 인간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여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미국문학에 인간의 진정한 삶의 가치관을 심어주었다.¹⁾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국문학의 정황 속에서 Malamud가 그의 *The Assistant*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재 방식인 자아실현을 추구하는가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Malamud는 대표적인 유대적 미국작가로서 인간의 본질과 삶을 작품에 세밀하게 묘사했다. 그는 작가의 목적이 문명 그 자체를 파괴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며, 문명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야한다고 그의 작품에 제시 하였다. 그는 허무주의를 배격하고 인간존중사상을 추구했다.

"The purpose of the writer . . . is to keep civilization from destroying itself." "My premise," he said, "is that we will not destroy each other. My premise is that we will live on. We will seek a better life. We may not become better, but at least we will seek betterment." "My premise,"

1) 권오경외, 『현대 미국소설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2), pp. 167-68 참조.

he continued, "is for humanism – and against nihilism. And that is what I try to put in my writings."²⁾

Sidney Richman은 비방과 허무주의가 인간의 삶의 규범이 되어버린 현시대에 Malamud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인간의 본질을 찾아가는 길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Malamud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인간 그 자체를 긍정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희망을 가지고,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어떤 극한상황도 극복할 수 있음을 그의 작품을 통해서 역설했다.³⁾

Malamud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겪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으면서 도전하는 작중 인물들은 그들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정의 내린다. 그에게 있어서 고통의 결과는 고독이고 고통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⁴⁾

Tony Tanner는 Malamud는 그의 모든 작품 속에 작중인물들이 미성숙한 삶의 태도를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성숙하게 되는 이야기를 썼다고 했다. 그의 인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새로운 삶을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통한 성숙에 의해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간을 파괴하는 불운이 또한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 수 있다고 함으로써 Malamud의 작품의 주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All his novels are fables or parables of the painful process from immaturity to maturity – maturity of attitudes, not of years. Malamud's characters discover that it is only by this 'dying' into maturity that they

2) Leslie A. Field and Joyce W. Field, *Bernard Malamud: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5), p. 7.

3) Sidney Richman, *Bernard Malamud* (Boston: Twayne Publishers, 1966), p. 145 참조.

4) Robert Alter, "Malamud as Jewish Writer," (*Commentary* Sept. 1966), p. 72, 김유조, “버나드 맬러머드의 초기작 *The Assistant* 연구,” 『인문과학논총』 제33집 (서울: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p. 28에서 재인용.

can find the 'new life' for which, in their various ways, they long. He shows, for one thing, how a man may help to imprison himself; for another, how an imprisoned man can forge a new self in his reactions to the imprisoning forces. In his world the bad luck which nearly breaks a man may also make a man.⁵⁾

Malamud의 작품 대부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유대인들이다. 그 이유는 작가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유대인을 불확실한 운명 속에서 투쟁하는 인류의 상징으로 보았고 유대인이 가장 좋은 작품의 소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⁶⁾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주로 Schlemiel-Schlimazel형의 인물로 이는 유대성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Schlemiel-Schlimazel형 인물이란 Schlemiel은 가만히 있어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수동적 희생자이고, Schlimazel은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하려 하지만 그 때마다 불운을 당하는 적극적 희생자이다.⁷⁾ Malamud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곧 Schlemiel-Schlimazel형의 인간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가 그의 작품에 유대인을 등장시킨 것은 단순히 평범한 유대인을 그려내고자 함이 아니라 유대인이 겪는 고난이 곧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려는 것이다. 그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이는 마치 얼핏 보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낙오자들의 삶을 그린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끈끈한 인간애와 도덕적인 성숙이 짙게 스며들어 있다. Malamud 소설의 주인공들은 엄청난 가난과 억압, 그리고 박해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삶에 고통을 느끼는 한편 항상 새로운 생활을 열망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 Malamud는 1964년 *The National Observer*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설의 중심 주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5) Tony Tanner, *City of Words*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71), pp. 323-24.

6) Ihab Hassan, *Contemporary American Literature 1945~1972*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70), p. 39.

7) Jeffrey Helterman, *Understanding Bernard Malamud* (Columbia: South Carolina Univ. Press, 1985), p. 14 참조.

인터뷰에서 보여주듯이 Malamud가 패배자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작품을 분명히 잘못 읽은 것이라 하겠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는 인간의 잠재력이다. 그는 사람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존재가치를 알게 된 저력, 즉 정신의 원천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다.

A bad reading of my book would indicate that I'm writing about losers. That would be a very bad reading. One of my most important themes is a man's hidden strength. I am very much interested in the resources of the spirit, the strength people don't know they have until they are confronted with a crisis.⁸⁾

Malamud는 그의 두 번째 작품 *The Assistant* 에서도 역시 이런 주제를 정확히 그려냈다. *The Assistant*는 유태인 Morris Bober가 경영하는 식료품 가게를 배경으로 한다. 이 작품은 Morris의 식료품 가게에 침입한 이탈리아계 청년 Frank Alpine이 강도 행각을 벌였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의 가게에서 점원으로 고용되어 일어나는 일을 그려냈다. 작품 속의 Morris는 세상을 정직하게 사는 인물로 고난을 인내하며 사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대표하는 사람인 반면에 Frank는 선과 악 두 가지를 모두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양면적 인물로 처한 환경이 불우한 탓에 내적 성숙을 기하지 못하여 물질과 성공만을 추구한다. 그러나 Morris를 만난 이후로 진정한 자아를 찾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된다. 세속적인 면에서 패배자인 듯 해 보이는 두 인물을 통해서 Malamud는 고난을 견뎌내고 진정한 도덕성을 얻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Morris와 Frank를 통해 현대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의 두 번째 작품 *The Assistant*에 등장한 주요 인물 Morris와 Frank의 성격분석을 통해 Malamud의 핵심 메시지인 고난을 극복하여 도덕적으로 성

8) W. J. Handy, "The Malamud Hero: A quest for Existence," *The Fiction of Bernard Malamud*, eds. Richard Astro and Jackson J. Benson (Corvallis: Oregon State Univ. Press, 1977), p. 65.

숙함으로써 마침내 자아실현을 성취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러한 논문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I장 서론에서는 Malamud가 당시 작품활동을 했던 사회 상황 및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II장 주요 인물의 성격분석에서는 Morris의 고통의 원인을 찾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또 다른 주인공 Frank가 겪는 고난과 그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마침내 어떻게 자아실현을 성취하는가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 소설이 Malamud의 문학세계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강조하고자 한다.

II. *The Assistant*에 나타난 주요인물의 성격분석

A. Morris Bober의 고난의 가치

Morris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American dream을 이루려고 건너 왔지만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미국 자본주의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20년 넘게 뉴욕의 한 빈민가에서 작은 식료품가게를 운영하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해가는 인물이다. 그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하는 불운한 전형적인 Schlemiel-Schlimazel형 인간으로 타고난 불운때문에 항상 고통 받는다. 그는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루 16시간씩 일하지만 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가게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진다. 게다가 독일인 H. Schmitz가 Morris가게 근처에 또다시 비슷한 가게를 차리는 바람에 형편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는 한때 약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야간고등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아내 Ida와 결혼한 후 그녀의 권유로 그 꿈을 포기하고 식료품 가게를 개점한다. 그 이후로 그는 일상의 대부분을 가게에서 보내지만 가게에 있는 그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Malamud가 작품 안에서 가게를 “Now that store looked like a long dark tunnel.”⁹⁾ “In a store you were entombed”(p. 9), “A store is a prison”(p. 33), 그리고 “overgrown coffin”(p. 79)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Morris에게 식료품 가게는 무덤이자 감옥이다. 이렇듯 그에게 가게는 단지 생계수단일 뿐 더 이상 희망을 주는 곳이 아니다.

게다가 그는 가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Morris의 아내 Ida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아닌 이 뉴욕의 빈민가에 자리 잡아서 자신을 고생시킨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옛날 친구들과 고향사람을 그리워하고 항상 가난에 찌들어서 사는 삶에 진저리가 나있다. 그는 하나뿐인 딸 Helen에게조차 존경받는 아버지는 아니었다. Helen은 Morris를 행운과는 절대적으로 거리가 먼 탓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더욱 가난해진다고 생각했다. 그의 나이 60세가 되어서 30세 때보다 그의 재산이 줄어든 것도 확실히 하나의 재주라고 Helen은 생각한다. 이와 같이 Morris는 가장으로서 가족 어느

9) Bernard Malamud, *The Assistant* (New York: Penguin Books, 1957), p. 8. 앞으로 이 책에서의 원문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만을 표시함.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한 채 무능력한 가장으로 여겨진다.

작품 안에서 Morris는 타고난 불운 때문에 끊임없이 고난을 겪는데 그러한 고통은 그의 삶 속에 늘 함께하는 동반자인 듯해 보인다. 이는 마치 그가 유대인이라는 종족의 특수성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를 인내하며 사는 듯 보이나 그가 살던 빈민가에는 Morris 외에도 Sam Pearl과 Karp라는 다른 두 명의 유대인이 한 동네에 살고 있었다. Karp는 평범한 양화점을 차렸었는데 금주법령이 폐지되면서 주류 판매 허가증을 얻고 주류상을 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Pearl은 장사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경마복권 운이 좋아서 자신의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결국 Morris 가족이 가장 가난했지만 그는 그들의 부를 부정직한 것으로 여기고 부러워하지 않는다. 특히 Karp는 Morris에게 고난을 주는 인물 중 한 명이다. Karp가 세를 내줬던 양복점이 문을 닫자 그는 H. Schmitz에게 식료품 가게를 내줘서 Morris의 가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Karp는 약삭빠르고 남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치 않고 매사에 자기 위주로 행동하고 말한다. 양복점이 문을 닫게 되어 Karp는 Morris에게 양복점 아니면 구두방을 열겠다는 사람에게 세를 주겠다고 했으나 곧 그가 식료품가게에 세를 내주었다. 이를 따지는 Morris에게 누가 자신의 세금을 내주겠냐면서 새로 문을 열게 될 이가 조제식품을 더 많이 팔게 되면 Morris는 더 많은 식료품을 팔게 되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여 말하며 그가 오히려 손님을 데려올 것이라고 억지논리를 펼친다. 이로 인해 Morris의 가게에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Ward와 Frank가 Karp의 가게를 털려고 한다는 사실을 Karp가 눈치를 채고 가게문을 일찍 닫고 그에게 신고를 부탁한다. 하지만 Morris는 아무 의심 없이 방심하고 있다가 결국 Morris의 가게에 강도가 들고 만다. 또한 H. Shmits가 병들어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자 또 다른 노르웨이인에게 가게를 팔아 Morris의 가게를 또 다시 위협한다. Morris의 가게에 강도가 든 이후로 한참이나 서로 왕래가 없다가 Karp가 식료품 가게에 들어오자 Morris는 Karp가 가게에 들어올 때는 언제나 나쁜 소식을 갖고 온다고 말한다. 이는 그의 또 다른 시련을 스스로가 직감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작품에서 Karp의 행운과 Morris의 불운에 대해 명료하게 나타낸 표현이 있다. Karp가 손대는 것은 무엇이든 금덩이로 변하는 반면에 Morris는 지나가다가 썩

은 달걀을 줍더라도 그것은 이미 깨져 줄줄 흘러내린다는 것이다. 또한 Morris는 불행이 바나나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릴 정도로 불운을 안고 사는 인물이라고 작가는 표현했다.

Whereas Karp in whatever he touched now coined pure gold, if Morris Bober found a rotten egg in the street, it was already cracked and leaking. . . . And because he was, his troubles grew like bananas in bunches. (p. 134)

이와 같이 Morris에게 시련을 주는 인물은 다름 아닌 그의 동족인 유태인이다. 여기에서 Malamud는 오직 유태인만이 고통 받는다는 전체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유태인이 세상의 모든 사람 즉 우리를 대표하는 대리인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그의 삶에서 고난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힌다. 그가 젊었을 때 동업하던 친구에게 속아 재산을 날려버리고 아들은 컷병으로 죽고 말았다. 언젠가 한 주정뱅이가 Karp의 유리창에 돌을 던졌지만 막상 깨진 것은 Morris의 유리창이었고 약삭빠른 Karp가 강도가 들 것을 눈치 채고 도망가는 바람에 Morris의 가게에 강도가 들기도 한다. 또 방이 추워 난방기를 켜려고 스위치를 켜고 성냥을 긋는 것을 잊어버려 가스가 새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한다.

Hassan은 Morris를 겸손의 대명사인 *erion*¹⁰⁾의 또 다른 본보기라 칭하고 오히려 더 겸손하다고 말한다. 그는 수년간 겪은 고통에 굴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인생의 비극적 특징이 고난임을 알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유태인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극한의 고통을 그 자신이 조화시킨다. 이는 Morris의 강점이다.

Morris Bober, to be sure, is another example of the *erion*, the humble man. He is more. He has endurance, the power to accept suffering

10) 그리스 희극에 나오는 인물로 걸보기에는 아무 특별한 데가 없지만 속으로는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인물.

without yielding to the hebetude which years of pain induce. He is acquainted with the tragic qualities of life—"The world suffer. He felt every shmerz"— and he defines the Jew as a suffering man with a good heart, one who reconciles himself to agony, not because he wants to be agonized, as Frank suggests, but for the sake of the Law—the Hebraic ideal of virtue. Yet this is one source of Bober's strength.¹¹⁾

Morris는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그저 받아들이는 모습이 “The world suffers.”,(p. 10) “. . . he knew his fate.”,(p. 15) “The end fitted the day. It was his luck, others had better.”(p. 28) 라는 표현으로 작품 내에서 나타난다. 세상은 고통을 받고 그는 그의 운명을 잘 알고 있다. 그 종말은 바로 그 날에 맞아떨어지고 그것이 그의 운명 일 뿐 다른 이들은 더 나은 운을 갖고 있다고 함으로써 그는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무기력해 보인다.

그가 고난 받는 또 다른 이유는 타고난 성품인 자비심과 정직함 때문이다. Morris는 항상 정직하게 살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비심의 정도가 터무니없을 만큼인 사람이다. Hassan이 “His other source is charity, which in his case becomes nearly quixotic.”¹²⁾라고 말할 정도이다. 그의 자비심은 일반인의 기준으로는 가히 비현실적이다. 자신도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형편에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작품 곳곳에서 나타난다. 추운 날씨에도 새벽부터 겨우 3센트짜리 빵 하나를 사는 노파를 위해 Morris가 문을 여는 장면에서 그는 굳이 3센트를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항상 기다리는 노파를 위해서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연다. 그리고 아침에 가게 영업 준비를 다 끝내면 술주정뱅이 여인의 딸이 외상을 하러 온다. 처음에 Morris가 안된다고 하자 아이가 울음을 터트리는데 결국 아이에게 외상을 주고 만다. 그 후에 그는 외상금액을 장부에 그대로 기입하려다가 돈을 결국 더 줄여서 쓰

11) Ihab Hassan, "The Qualified Encounter," *Radical Innocence: Studies in the Contemporary Novel*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p. 163.

12) Ibid.

고 만다. 겉으로는 Ida의 잔소리가 싫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받지 못할 돈이니 액수라도 적으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서이다.

The total now came to \$2.03, which he never hoped to see. But Ida would nag if she noticed a new figure, so he reduced the amount to \$1.61. His peace - the little he lived with - was forty-two cents. (p. 8)

한편 그는 가게에 찾아오는 두 명의 유태인 Al Marcus와 Breitbart에게는 손수 차를 대접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자 한다. Frank가 빵을 훔쳐 먹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점원으로 고용한 모습에서도 그의 자비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정직해서 남도 정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딸 Helen도 아버지 Morris의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다. Morris는 정직함이 배여 있어서 사기꾼조차도 믿을 정도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지만 점점 더 가난해진다.

He laboured long hours, was the soul of honesty - he could not escape his honesty, it was bedrock; to cheat would cause an explosion in him, yet he trusted cheaters - coveted nobody's nothing and always got poorer. (p. 19)

Morris가 자기가 목격한 장사꾼들의 속임수에 대해 Frank에게 이야기하자 Frank는 Morris에게 왜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그는 놀라면서 손님들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데 왜 자기가 사람을 속이겠느냐고 하면서 정직하게 살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남을 속이면서 푼돈을 버느니 이윤이 덜 남더라도 정직한 쪽을 택한 것이다.

'Why don't you try a couple of those tricks yourself, Morris? Your amount of profit is small.'

Morris is looked at him in surprise. 'Why should I steal from my customers? Do they steal from me?'

'They would if they could.'

'When a man is honest he don't worry when he sleeps. This is more important than to steal a nickel.' (p. 78)

또한 타인의 부정직함을 보았을 때는 무조건 비난하기 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헤아려본다. Frank가 가게의 돈을 몰래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Morris도 화가 나서 Frank를 의심하고 몰래 감시했지만 그에게서 특별한 그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하자 그는 Frank가 훔쳤을 수도 있지만 Frank보다 그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Frank는 필요한 것이 많은 성인인데 일주일에 고작 6,7 달러란 돈 밖에는 주지 못했다. 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노예에게나 주는 임금을 준 자신에게 과오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Frank가 굳이 사양하는데도 Ida 몰래 임금을 올려준다.

Morris then thought, yes, the clerk could have been stealing, but if so it was more his fault than Frank's. He was a grown man with a man's needs and all he was paying him, including his meagre commission, was about six or seven dollars a week. . . . The fault was therefore his for paying slave wages for a workman's services, (p. 116)

또한 Frank가 그의 식료품가게에서 강도 행각을 했던 강도 중 한명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Morris의 가족들에게 조차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자비심 가득한 Morris의 모습은 이외에도 Karp의 가게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볼 수 있다. Karp의 가게

에 불이 난 것은 자신이 예전에 Karp의 가게를 지나가면서 “Although it shamed him, Morris wished the liquor store would burn to the ground.”(p. 183) 라며 주류 판매점에 불이나 나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아무도 모르는 Morris의 속마음이었음에도 그는 그런 생각을 잠시 가졌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 죄악시하며 괴로워한다.

그는 화재가 난 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 Karp의 가게의 잔해들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가책으로 찢어지는 듯한 자기 가슴을 언 손으로 쥐어뜯으며 그는 자신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을 느꼈다. Karp에게 이런 불행이 오기를 그가 잠시동안 바랬더라도 막상 그런 일이 터지자 그의 괴로움은 엄청났다. 그는 남의 고난을 즐길만한 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Afterward Morris couldn't sleep. He stood at his bedroom window in his long underwear, looking down at the pile of burned and broken fixtures on the sidewalk.

With a frozen hand the grocer clawed at a live pain in his breast. He felt an overwhelming hatred of himself. He had wished it on Karp - just this. His anguish was terrible. (p. 193)

Morris가 어느 정도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무섭게 또 다른 고난의 그림자가 그를 덮쳐온다. Karp가 와서 독일인 H. Schmitz의 가게를 다른 노르웨이인들에게 팔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장사가 잘 된 이유는 새로 온 점원 Frank 때문이 아니라 H. Schmitz가 병에 걸려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라고 Karp가 말한다. Morris는 이제 한숨 돌릴만하다고 느낀 이 시점에 또 다른 시련이 닥치자 좌절한다. Karp가 가게가 잘된 이유는 Frank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에 실망한 Morris는 Frank가 금고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서 그를 쫓아 버린다.

그리고 Karp의 도움으로 식료품 가게를 팔려고 한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가게를 팔게 될 경우 그 가게를 사는 사람이 겪게 될 불운에 마음이 짝짝해진다. 순진하게 생긴 피난민 Podolsky가 가게를 사려고 왔을 때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장사가 잘 안된다고 솔직하게 말해버린다.

Overwhelmed by pity for the poor refugee, at what he had in all probability lived through, a man who had sweated blood to save a few brutal dollars, Morris, unable to stand the planned dishonesty, came from behind the counter, and, taking Podolsky by the coat lapels, told him earnestly that the store was run-down but that a boy with his health and strength, with modern methods and a little cash, could build it up in a reasonable time and make a decent living out of it. (pp. 180-81)

더 이상 식료품가게 운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Morris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게 된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마땅치 않았던 Morris는 예전 동업자 Charlie에게 가서 일자리를 달라고 부탁한다.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엄청나게 번창한 가게를 가지고 있는 Charlie를 보면서 Morris는 Helen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기는 하지만 예전 동업자 Charlie의 부정직한 부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게 돈을 벌기를 원한다.

He would not envy Charlie Sobeloff his dishonest wealth, but when he thought of what he could do for Helen with a little money his regret deepened that he had nothing. (p. 184)

그가 Charlie에게 부탁해서 그의 가게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게 된다. 하루 동안 계산원으로 일한 후 정산하니 1달러가 비었다. 그는 그냥 넘어가자는 Charlie에게 굳이 1달러를 배상하겠다고 한다. 오직 평생을 정직함과 이타심으로 살아온 그였으니 당연히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No,' the grocer heard himself say. 'I am short a dollar, so I will pay a dollar.'

He took several quarters out of his pants pocket, counted four, and dropped them into his ex-partner's palm. (p. 184-85)

낙담해 있는 그에게 전문방화범이 접근하여 그의 가게에 불을 내고 보험금을 타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다.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 don't like fires. I don't like monkey business."(p. 189)라고 부당거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면서 제안을 거절한다. 그의 심성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가 혼자 가게에 남아있을 때 몰래 셀룰로이드를 찾아서 화재를 시도해보지만 불이 오히려 그의 옷에 붙어서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 때 Frank가 나타나 그를 구해줘서 화를 면한다. Morris에게는 너무나 힘든 화재가 Karp에게는 쉽게 일어난다. Ward가 가게에 몰래 들어가서 술을 흠쳐 먹다가 화재를 낸 것이다. 이를 본 Morris는 고통은 가난한 사람이나 당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Karp 집에 세를 들었던 사람들과 젊어서 죽은 Ward, 그의 아버지에게 비극이었는지 몰라도 Karp에게는 비극일 수 없다. Morris 집에 화재가 일어났더라면 쓸모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Karp는 손쉽게 그런 화재를 당했다. 부익부 빈익빈이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며 다시 한 번 절망한다.

Pain was for poor people. For Karp's tenants the fire was a tragedy, and for Ward Minogue, dead young; maybe also for the detective, but not for Julius Karp. Morris could have used the fire, so Karp had got it for free. Everything to him who has. (p. 194)

이런 Morris에게도 행운이 찾아오는 듯 보인다. Karp가 Morris의 식료품가게를 사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기분이 좋아진 Morris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잊은 채 일요일

에 교회를 가는 이교도인들을 위해서 Ida가 말리는 데도 굳이 눈을 치우려고 고집을 부린다.

'I think I will shovel the snow,' he told Ida at lunch-time.

'Go better to sleep'

'It ain't nice for the customers.'

'What customers - who needs them?'

'People can't walk in such high snow,' he argued.

'Wait, tomorrow it will be melted.'

'It's Sunday, it don't look so nice of the goyim that they go to church.'

(pp. 195-96)

이 일로 인해 그는 폐렴에 걸리게 된다. 처음에 그는 유행성 독감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가족을 깨워 의사를 불러 달라고 할까 했지만 곤하게 자고 있을 가족이나 이웃, 의사를 깨우는 것이 미안해서 그만둔다. 그는 곧 폐렴을 앓게 되어 죽게 된다. 결국 죽기 전 한 행동도 Morris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것이었다.

그의 죽음에 랍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Morris가 유태인들과 함께 살지 않고 유태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팔고 20년 동안 유태교의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Morris는 진정한 유태인이라고 칭송하였다. 랍비의 말에 의하면 진정한 유태인은 자신이 유태인임을 깨닫고 유태적인 정신을 소유하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진정한 유태인이라고 한다. Morris는 남이 자기에게 해줬으면 하는 일을 자신이 한 것은 유태인적인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Rabbi, shall we call such a man Jewish who lived and worked among the gentiles and sold them pig meat, trayfe, that we don't eat it, and not once in twenty years comes inside a synagogue, is such a man a Jew, rabbi?" To him I will say, "Yes, Morris Bober was to me a true

Jew because he lived in the Jewish experience, which he remembered, and with the Jewish heart." Maybe not to our formal tradition – for this I don't excuse him – but he was true to the spirit of our life – to want for others that which he wants also for himself. He followed the Law which God gave to Moses on Sinai and told him to bring to the people. He suffered, he endured, but with hope. Who told me this? I know. He asked for himself little – nothing, but he wanted for his beloved child a better existence than he had. For such reasons he was a Jew. (p. 203)

바로 이런 유대인의 정신이 Malamud가 말하고자 하는 유대인인 것이다. Malamud가 작품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유대인이다. Frank가 Morris에게 유대인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착한 마음씨만 있으면 되고, 율법을 믿으면 된다고 대답한다. Frank는 Morris에게 유대교의 교회에도 가지 않고 유대교 의식에 맞춘 조리법(kosher)도 사용하지 않고 까만 색깔의 모자도 쓰지 않고 세 번 기도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유대교 축제일에도 가게를 열었던 적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 말에 대해 Morris는 생계를 위해서 문을 열었다고 하고 kosher도 구식이니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진정한 유대인은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 의미는 올바르게 알고,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Malamud가 말하고자 하는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율법만을 지키는 삶이 아닌 그 율법 안의 정신을 지키는 삶을 사는 이이다.

'This is not important to me if I taste pig or I don't. To some Jews is this important but not to me. Nobody will tell me that I am not Jewish because I put in my mouth once in a while, when my tongue is dry, a piece ham. But they will tell me, and I will believe them, if I forget the Law. This means to do what is right, to be honest, to be good. This

means to other people. Our life is hard enough. Why should we hurt somebody else? For everybody should be the best, not only for you or me. We ain't animals. This is why we need the Law. This is what a Jew believes.' (pp. 112-13)

Morris는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이상적인 인간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완벽한 인간상이다. 하지만 Malamud는 작품 내에 이런 Morris의 삶이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표현한다. 죽기 전 Morris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아내 Ida와 딸Helen에게 미안해하고 Frank를 생각하며 신음한다. 그는 그의 삶이 후회로만 가득 찼음을 한탄한다. 이는 그가 자신의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When the grocer felt himself awaking, he tried to get back into the dream but it easily evaded him. His eyes were wet. He thought of his life with sadness. For his family he had not provided, the poor man's disgrace. Ida was asleep at his side. He wanted to awaken her and apologize. He thought of Helen. It would be terrible if she became an old maid. He moaned a little, thinking of Frank. His mood was of regret. I gave away my life for nothing. It was the thunderous truth. (p. 200)

또한 장례식에서 랍비의 말을 들은 후 Helen 역시 랍비의 말이 맞기는 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정직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살아계시지 않은데 무슨 소용이냐면서 반박한다. 아버지가 가난한 여인에게 5센트를 돌려주기 위해 쫓아간 건 사실이지만 자기 재산을 도둑질하는 사기꾼을 신용하였으며 그는 자신이 정직하게 태어나다보니 남이 부정직하게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남에게 헌신적으로 많은 것을 주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녀는 아버지를 성자로 보지 않고 그저 의지가 박약하고 평생 가게 안에 자신을 묻어 희생자로

만들으로써 실패한 인생을 살다간 분으로 여긴다.

Helen, in her grief, grew restless. He's overdone it, she thought. I said Papa was honest but what was the good of such honesty if he couldn't exist in this world? Yes, he ran after this poor woman to give her back a nickel, but he also trusted cheaters who took away what belonged to him. Poor Papa; being naturally honest, he didn't believe that others come by their dishonesty naturally. And he couldn't hold on to those things he had worked so hard to get. He gave away, in a sense, more than he owned. He was no saint; he was in a way weak; his only true strength in his sweet nature and his understanding. He knew, at least, what was good. And I didn't say he had many friends who admired him. That's the rabbi's invention. People liked him, but who can admire a man passing his life in such a store? He buried himself in it; he didn't have the imagination to know what he was missing. He made himself a victim. He could, with a little more courage, have been more than he was. (pp. 203-204)

심지어 아내 Ida조차도 약사가 되겠다던 Morris를 식료품 가게를 내도록 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을지 모르지만 Helen만은 반드시 전문직을 가진 사람과 결혼 시켜야 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Ida 역시 Morris의 인생에서 정직함이나 자비심을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이와 같이 Ida나 Helen, 심지어 Frank조차 Morris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평생 고생만하다가 죽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Frank는 그의 죽음을 보고 고생이라는 것은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유태인은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유태인이 많은 이유를 의아해한다. 세상에 유태인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유태인이야말로 고통 받는 만인을 상징하는 Malamud의 생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¹³⁾

Malamud는 그의 죽음에 대해 Frank를 비롯한 작품 속 인물들이 Morris는 그저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정직하고 배려심이 가득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Morris의 실패는 바로 그 자신의 성공이다. 사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선한 마음이 곧 그의 영적인 승리를 의미한다.¹⁴⁾ Malamud가 나타내하고자 한 바는 비록 Morris는 비참한 현실에서 고된 삶을 살았지만 항상 정직하고 자애심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만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허무주의와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추구해야할 인간상이라는 점이다.

B. Frank Alpine의 자아완성

Frank는 이탈리아계 청년으로 그 역시 Morris처럼 Schlemiel-Schlimazel형 인물로 어려서부터 뜻하지 않게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는 생후 일주일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를 버리고 집을 나간 후 죽었다. 그래서 그는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어렵게 살아갔다. 입양된 곳에서도 공부는 시켜주지 않고 노동만 시켜서 그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낸다. 다음에 나타난 Morris와의 대화에서처럼 그는 산전수전을 모두 겪었다. 그는 직업, 교육이나 여자같은 것들에서 굉장한 것을 얻을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괜찮다 싶은 것들은 곧 자신으로부터 빠져나갔다. 원하는 것을 위해 노새처럼 일을 하고 얻었다 싶으면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이를 놓치고 말았다. 다음에 나오는 Frank의 말에서도 그가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What I started out to say before about my life,’ he said heavily,
‘is that I have had a funny one, only I don't mean funny. I mean I've

13) 한수현, “Bernard Malamud의 *The Assistant*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p. 27 참조.

14) Sheldon J Hershnow, *Bernard Malamud* (New York: Fredrick Ungar Publishing Co.,1980), p. 34 참조.

been through a lot. I've been close to some wonderful things - jobs, for instance, education, women, but close is as far as I go.' His hands were tightly clasped between his knees. 'Don't ask me why, but sooner or later everything I think is worth having gets away from me in some way or other. I work like a mule for what I want, and just when it looks like I am going to get it I make some kind of a stupid move, and everything that is just about nailed down tight blows up in my face.'

(p. 35)

그는 Morris의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기 전까지 아무 곳에서도 잠을 자고 마시고, 아무것이나 주워 입고 살았다. 그는 과정은 상관하지 않고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릇된 American dream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아무런 희망 없이 살다가 문득 자신은 평범한 인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죄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는 생활고에 지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만 잘 살수 있다면 어떤 범죄든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다. 그렇게 그는 돈을 모아 권총을 구입한 뒤 동부로 온 것이다. 그는 범죄로 운명을 바꾸고, 모험을 하여, 왕자처럼 살려고 했다. 심지어 그는 도둑질, 폭행, 필요하다면 살인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즐거움에 몸을 떨었다. 이렇게 그는 부를 위해서는 살인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만능주의 자였으며 도덕성마저 결여되어 있었다.

At crime he would change his luck, make adventure, live like a prince. He shivered with pleasure as he conceived robberies, assaults - murders if it had to be - each violent act helping to satisfy a craving that somebody suffer as his own fortune improved. He felt infinitely relieved, believing that if a person figured for himself something big, something different in his life, he had a better chance to get it than some poor jerk who couldn't think that high up. (p. 84)

하지만 Malamud는 Frank가 어렵게 세상을 살다보니 도덕성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 천성은 선하다라는 전제하에 작품을 그려냈다. 그가 Frank의 내면에 선이 내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장치로 St. Francis를 사용하였다. 작품 내에 Frank는 St. Francis를 흠모하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장면이 나온다. 그가 Pearl의 가게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잡지를 뒤적거리는데 St. Francis의 그림을 발견하는 장면이 있다. 그는 Pearl에게 이 그림에 대해 St. Francis가 새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St. Francis를 위대하고 그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남들에게 주었으며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하듯 가난을 사랑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Pearl은 가난은 욕이라고 대꾸하지만 Frank는 St. Francis의 견해는 새롭다며 St. Francis를 동경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가 이처럼 St. Francis를 흠모하는 모습은 훗날 그 역시 St. Francis처럼 성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St. Francis가 가난한 경제 여건 아래 타인을 향한 사랑을 실천한 삶이 자신의 생계를 걱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을 위해 살았던 Morris의 삶과 닮아 있다. Frank는 고아원에서 들은 St. Francis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으며 이를 자신이 사랑하는 Helen에게 해준다. 그가 St. Francis를 기억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 자신도 St. Francis와 비슷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무의식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No. I remember it from the time I was a kid. My head is full of those stories, don't ask me why. A priest used to read them to the orphans in this home I was in, and I guess I never forgot them. They come into my thoughts for no reason at all. (pp. 87-88)

Frank는 Ida가 “He was like a man with two minds.”(p. 110)라고 말한 것처럼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이다. 그는 그릇된 American dream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범죄 욕구와 St. Francis를 동경하는 선한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한다.¹⁵⁾

15) 최기군, “버나드 맬라머드(Bernard Malamud)의 휴머니즘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9), p. 42 참조.

Ward와 함께 Morris의 가게에서 강도 행각을 벌일 때도 역시 충동적으로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선한 심성 때문에 Ward의 행동을 말리기도 하고 쓰러져있는 Morris에게 물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The one at the sink hastily rinsed a cup and filled it with water. He brought it to the grocer, spilling some on his apron as he raised the cup to his lips. (p. 27)

또 Morris의 가게에 점원으로 들어간 것도 강도짓을 뉘우치는 그의 선한 심성에서 바탕이 된 것이다. 하지만 가게에서 Morris의 일을 도와주면서도 그의 양면성은 끊임없이 드러난다. 그는 Morris의 가게에서 일하게 되자 강도짓으로 생긴 7달러 50센트를 Morris 몰래 금전 등록기에 도로 넣음으로써 되돌려 준다. 처음에는 Morris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정직하게 일을 하지만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Frank는 돈을 몰래 훔쳐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양심에 가책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번 돈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가 몰래 돈을 훔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가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이런 돈을 만져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짐하였지만 막상 남은 것은 후회 밖에 없었다. 그는 손톱으로 손등을 긁으며 신음하고 어떤 때는 면도를 하거나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에는 정직하라고 그 자신을 타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여 고통 속에서 기이한 쾌감을 느꼈다. 그래서 돈을 몰래 훔쳐내는 일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의 내면에서는 선과 악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한다.

He had nothing to be ashamed of, he thought - it was practically his own dough he was taking. The grocer and his wife wouldn't miss it because they didn't know they had it, and they wouldn't have it if it wasn't for his hard work. If he weren't working there, they would have

less than they had with him taking what he took.

Thus he settled it in his mind only to find himself remorseful. He groaned, scratching the backs of his hands with his thick nails. Sometimes he felt short of breath and sweated profusely. He talked aloud to himself when he was alone, usually when he was shaving or in the toilet, exhorted himself to be honest. Yet he felt a curious pleasure in his misery, as he had at times in the past when he was doing something he knew he oughtn't to, so he kept on dropping quarters into his pants pocket. (pp. 64-65)

그는 Morris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끊임없이 돈을 훔치면서 쾌감을 느낄 때도 있다. 유태인 면전에서 돈을 훔치는 것은 그에게 쾌감을 줄 때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게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Morris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주었으므로 약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돈을 훔치는 일을 계속한다. 또한 언젠가는 값을 요량으로 훔친 금액의 총계를 적어서 신발 밑창에 깔고 다녔다. 그러나 이런 모습도 얼마 되지 않아 그는 Morris의 금고에 손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는 표현할 수 없는 이유로 괴로워하고 가끔씩 친한 친구의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처럼 가슴에 슬픔이 가득 차는 때가 있었다.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은 내면에 선한 마음이 존재하여 언젠가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For this reason he could not explain why, from one day to another, he should begin to feel bad about snitching the bucks from Morris, but he did. Sometimes he went around with a quiet grief in him, as if he had just buried a friend and was carrying the fresh grave within himself. (p. 78)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Morris에게 고백하려고 했으나 고백하고 나면 이전처럼

인생을 또 망쳐버릴 것 같아 고백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괴로워한다. 그러다가 훔친 돈을 조금씩 돌려주기로 다짐하고 자신의 수중에 있는 6달러를 금전등록기에 넣는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행동에 기쁨을 느끼고 눈가가 흐려진다.

His wallet contained a five-dollar bill and a single, and he planned to put it all back in the register, which would leave him only with a few coins in his pocket but tomorrow was pay day anyway. After ringing up the six bucks, to erase the evidence of an unlikely sale he rang up 'no sale'. Frank then felt a surge of joy at what he had done and his eyes misted. (p. 143)

그는 식료품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어느 날 Breitbart와 Morris가 신세한탄을 하며 둘이 함께 우는 것을 보고 Frank는 유대인은 고생하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가 아파도 화장실을 가지 않고 오래 참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유대인이라고 여기며 이렇게 사는 삶을 지켜워하기까지 한다. 이는 아직까지 진정한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도덕적 성숙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at's what they live for, Frank thought, to suffer. And the one that has got the biggest pain in the gut and can hold on to it the longest without running to the toilet is the best Jew. No wonder they got on his nerves. (p. 81)

하지만 Frank는 Morris를 곁에서 지켜보며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관심으로 변한다.¹⁶⁾ 그래서 어느 날 Morris에게 유대인이 무엇인냐고 묻는다. 이에 Morris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필요한데 이는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한다.

16) Ibid., p. 45.

유태인은 고통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에 율법을 위해 고통을 받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며 Morris는 Frank를 위해 고통을 받는다고 대답한다. 유태인이 율법을 잊어버리면 선인이 아니라고 말해준다. 하지만 당시에 Frank는 Morris의 말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This means to do what is right, to be honest, to be good. This means to other people. Our life is hard enough. Why should we hurt somebody else? For everybody should be the best, not only for you or me. We ain't animals. This is why we need the Law. This is what a Jew believes.' . . .

'It seems to me that they like to suffer, don't they?'

'Do you like to suffer? They suffer because they are Jews.'

'That's what I mean, they suffer more than they have to.'

'If you live, you suffer. Some people suffer more, but not because they want. But I think if a Jew don't suffer for the Law, he will suffer for nothing.'

'What do you suffer for, Morris?' Frank said.

'I suffer for you,' Morris said calmly.' . . .

'If a Jew forgets the Law,' Morris ended, 'he is not a good man.' (pp. 112-13)

미성숙한 Frank에게 Helen에 대한 사랑이 그를 도덕적 성숙으로 이끄는 또 다른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Frank는 Helen에게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다. 그는 출퇴근하는 그녀를 몰래 훑쳐보거나 목욕하는 모습을 훑쳐보기도 했다. 어느 날은 오지도 않은 전화를 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녀를 가게로 내려오게 한 적도 있다. 하지만 Helen은 가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보다 낫게 만들어 줄 남자를 원했기 때문에 Frank에게 관심이 없다. 또한 Ida도 그를 못마땅하게 여겨 그와 그녀가 같이 있는 상황조차도

만들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지만 좀처럼 다가가지 못한다.

그러나 남자친구와 더 이상 만나지 않는 Helen은 도서관에서 Frank를 자주 마주치게 된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에게 점차 호감을 가지게 된다. Helen과의 사랑이 점차 깊어질수록 그는 조금씩 변화한다. 그는 Frank의 범죄 대상이 유대인이라서 죄책감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후회한다. 특히 Helen이 그의 근처에 있을 때에는 더욱 심해졌다. 그는 Helen에게 좀 더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계속 자신의 죄를 자백하려고 한다. 이렇게 자백하고 흠친 돈도 돌려주면 양심의 짐을 덜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 속에 생각만 가득할 뿐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Helen은 그의 정신적 성숙을 위해 도움을 준다. 그의 정신적 성숙을 위한 한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일깨워주려고 Helen은 책을 읽도록 권한다. “To help him prepare for college Helen said he ought to read some good novels, some of great ones.”(p. 9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대학에 진학하려면 소설을 읽어 봐야한다고 말한다. 그는 처음에는 읽고 싶어 하지 않는데 점점 읽을수록 책에 빠져들고 소설 속 인물들에게 감명을 받는다. 이렇게 Frank는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대학안내서를 보고 어느 학교든 선택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He didn't say much more, for he was always afraid the old jinx would grab hold of him if he opened his mouth a little too wide.”(p. 121) 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가 그를 괴롭히는 징크스에 사로잡힐까 두려워서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불운은 Morris처럼 Frank에게도 항상 따라 다녀 그를 괴롭힌다. 또한 그는 그녀에 대한 사랑이 깊어갈수록 육체적 관계를 원한다. 하지만 Nat와의 육체적 관계에 회의를 느낀 그녀는 그의 요구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에게 자제심을 기르도록 권유한다. 그는 그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Frank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Helen의 사랑과 Morris의 삶을 보면서 점차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강도짓을 다시 하자고 Ward가 제안했을 때 Frank가 거절하자 Ward는 그에게 “Your Jew girl must be some inspiration”(p. 130)이라고 한 것처럼 Frank는 Helen에 의해 점점 도덕적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Frank의 변화는 Helen의 눈을 통해 나타난다. 어느 날 그녀가 멀리서 보는 그의 모습은 새들이 그의 팔, 어깨, 손바닥, 그리고 그의 모자에 앉아 그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있다. 이는 그가 Pearl의 가게에서 봤던 그림의 St. Francis의 모습과 대단히 유사한 모습이다. 이 장면은 그의 삶의 모습이 훗날 St. Francis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Coming up the block, Helen saw a man squatting by one of the benches, feeding the birds. Otherwise, the island was deserted. When the man rose, the pigeons fluttered up with him, a few landing on his arms and shoulders, one perched on his fingers, pecking peanuts from his cupped palm. Another fat bird sat on his hat. The man clapped his hands when the peanuts were gone and the birds, beating their wings, scattered. (p. 107)

그러나 Frank는 Helen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게 된다. 그녀는 그를 정말로 사랑하게 됨을 깨닫고 이 사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날 그는 금전 등록기에 수종의 돈을 다 넣어서 데이트 비용이 없어 고민하게 된다. 결국 고민하다가 Morris 몰래 1달러를 훔치려다가 그에게 들켜서 가게에서 쫓겨나고 만다. 그는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녀를 만나러 가는데 Ward가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구해준다. 하지만 그녀의 알몸을 본 그는 그녀를 강간하고 만다. 그녀가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가 싫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그녀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된다. 그는 Helen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만 것이다. 결국 Frank의 미성숙한 판단력과 도덕성 결여로 사랑과 일자리 모두를 잃게 된다. 이는 그가 걱정했었던 Morris에게 범했던 죄보다 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그녀에게도 범하게 된 것이다. 결국 그가 예전에 “. . . he would some day soon have a dirtier past to reveal.”(p. 86) 라고 예상한 것처럼 강도짓보다 더 추악한 과거를 밝히게 될 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결국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 처음에 Morris에게 말한 것처럼 일이 잘되려는 순간 어리석은 실수로 인해 Helen의 사랑을 놓친 것이다. 이 사건으로 Frank는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한다.

절망에 빠진 그는 이로 인해 진정한 도덕적 성숙을 이루는 계기를 갖게 된다. 그는 자책감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그와 동시에 예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확고한 도덕관을 갖춘 인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다. Frank는 절망의 낭떠러지에 이르러서야 진실로 지난날의 과오를 깨닫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도덕적 성장을 보여준다.

He planned to kill himself, at the same minute had a terrifying insight: that all the while he was acting like he wasn't, he was really a man of stern morality. (p. 157)

결국 Helen에 대한 사랑이 Frank를 진정으로 변화하게 만든 것이다 Richman 역시 Frank에게 사랑이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 태어나게 하며, 자아의 장벽을 깨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한다.

Malamud indicates that his rebirth through suffering is continued and invigorated by love, which seems finally the only means of breaking through the barriers of self.¹⁷⁾

Frank는 Morris가 가스 중독으로 쓰러진 것을 구하고 그가 입원해 있는 동안 Ida 몰래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해서 그 가족의 생계를 돕는다. 그러는 가운데 점점 Frank는 Morris의 심성을 닮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가게가 장사가 되지 않아서 페인트공에게 밀린 외상값을 받으러 갔으나 그 집 아이들이 굶주린 것을 보고 그는 가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침대 밑에 숨겨둔 마지막 3달러를 주려고 다시 돌아간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병들어 구걸하는 Ward를 길에서 만나 그에게 돈을 주고 만다. 비록

17) Richman, op.cit., p. 60.

페인트공의 아이들에게 주진 못했어도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Morris에게 가득했던 자비심이 Frank에게도 나타나는 부분이다. 갖은 고난으로 Frank가 점차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Under the mattress of his bed he had his last three bucks hidden. He took the bills and ran back to Carl's house. But on the way he met Ward Minogue. His face was yellow and shrunken, as if he had escaped out of a morgue. . . .

'I'm sick,' sobbed Ward.

Frank gave the three bucks to him and later dropped the gun into a sewer. (p. 170)

Frank 자신이 아닌 Helen과 그녀의 가족을 위해 식료품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는 인내력이 있고 자신을 희생하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유태인에 대한 간단한 역사책도 읽었다. 평소에 서가에서 보았을 때는 별관심이 없었지만 호기심이 생겨 읽었던 것이다. 유태인을 혐오하고 Morris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가 유태인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Frank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모습을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Morris의 장례식에서의 모습이다. Morris 장례식의 하관 때 Helen이 던진 장미를 보려다 실족하여 관에 떨어진 Frank가 춤을 추듯 허우적거리며 나오는 장면에 대해 그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장례식을 망쳤다고 여긴다. 그렇지만 이 장면은 Frank가 Morris 2세로 부활하여 새로 태어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가 Morris의 무덤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방랑자인 그는 죽고 율법을 따라 살아갈 Morris의 정신적인 아들로 재생되었음을 의미한다.¹⁸⁾

Helen tossed in a rose.

18) Peter L. Hays, "The Complex Pattern of Redemption," *Bernard Malamud and the Critics*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70), pp. 221-22 참조.

Frank, standing close to the edge of the grave, leaned forward to see where the flower fell. He lost his balance, and though flailing his arms, landed feet first on the coffin.

Helen turned her head away.

Ida wailed.

'Get the hell out of there,' Nat Pearl said.

Frank scrambled out of the grave, helped by the diggers. I spoiled the funeral, he thought. He felt pity on the world for harbouring him. (p. 205)

작품에서 grocer는 항상 Morris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Morris가 죽고 난 후 Frank가 grocer가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Frank가 Morris 2세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또한 Frank가 Morris의 가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Morris의 삶을 대신해서 살게 될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As they toiled up the stairs they heard the dull cling of the register in the store and knew the grocer was the one who had danced on the grocer's coffin. (p. 206)

작품에서 Morris는 20년이 넘도록 가게에서 고단하게 일을 했다. 그에게 있어서 식료품가게는 그저 무덤이고 관이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식료품가게에서 일하지만 그 가게는 부자가 되게 해주기는 커녕 그에게 항상 고통만 주는 가게이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식료품 가게는 방황하고 갈 곳 없던 Frank에게는 피난처이자 안식처가 된다.

The grocery store, which is Bober's grave, becomes a cave or haven for Alpine. It also becomes the dreary locus of his painful rebirth. 19)

그는 Morris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부양한다. 또한 Morris의 못다한 소원이자 Helen의 가장 큰 목표인 대학을 보내기로 결심한다. 주간에는 식료품가게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는 식당에서 야근을 하며 고된 생활을 한다.

Frank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Morris의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데 Helen이 Nat를 다시 만나자 그는 순간적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녀가 목욕하는 장면을 엿보기도 하지만 그는 곧 다시는 이런 짓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러나 다시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엿보고 손님들을 또다시 속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꼭 집어 말할 수 없지만 뭔가 친숙한 이유로 목욕하는 모습을 훑쳐보는 것을 그만두고 가게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하기로 한다. 이런 모습을 통해 Frank의 내면이 예전보다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은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첫 부분에서 자신이 잘 살기 위해 범죄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He climbed up the air shaft to spy on Helen in the bathroom. Twice he saw her disrobe. He ached for her, for the flesh he had lived in a moment. Yet he hated her for having loved him, for to desire what he had once had, and hadn't now, was torture. He swore to himself that he would never spy on her again, but he did. And in the store he took to cheating customers. When they weren't watching the scale he short-weighted them. A couple of times he short-changed an old dame who never knew how much she had in her purse.

Then one day, for no reason he could give, though the reason felt familiar, he stopped climbing up the air shaft to peek at Helen, and he was honest in the store. (p. 214)

그러던 어느 날 Helen이 야간대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우연히 Frank가 가

19) Hassan, op.cit., p. 164.

계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의 모습을 본 그녀는 그가 고생하는 이유가 자신과 Ida 때문임을 알고 Frank를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그녀는 그녀가 정의할 수 없는 마음속에 무언가가 그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변화를 감지한 그녀는 그가 더 이상 그녀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를 용서한다.

It was strange thing about people – they could look the same but be different. He had been one thing, low, dirty, but because of something in himself – something she couldn't define, a memory perhaps, an ideal he might have forgotten and then remembered – he had changed into somebody else, no longer what he had been. She should have recognized it before. What he did to me he did wrong, she thought, but since he has changed in his heart he owes me nothing. (p. 215)

그리고 Frank에게 다가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그가 선물해준 책을 읽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그녀의 모습에 그는 어쩐지 흐뭇해한다. 게다가 얼마 후 그녀가 Nat와 다룬다. 이런 사실로 Frank와 Helen, 이들의 화해는 점차 이루어질 것임일 알 수 있다. 결국 그의 희생을 알아주는 듯 그가 독서를 하다가 St. Francis의 환영을 보는 장면을 보면 Helen이 쓰레기통에 버렸던 나무 장미가 생화로 변하고 그 장미는 Helen에게 바쳐진다. 물론 그 장미에는 Frank의 사랑과 호의가 담겨져 있다. 이 장면만으로도 두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암시한다.

As he was reading he had this pleasant thought. He saw St, Francis come dancing out of the woods in his brown rags, a couple of scrawny birds flying around over his head. St F. stopped in front of the grocery, and reaching into the garbage can, plucked the wooden rose out of it. He tossed it into the air and it turned into a real flower that he caught

in his hand. With a bow he gave it to Helen, who had just come out of the house. 'Little sister, here is your little sister the rose.' From him she took it although it was with the love and best wishes of Frank Alpine. (p. 217)

Frank는 Morris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산다. 이런 모습은 작품의 도입부에 Morris가 새벽부터 일어나 노파에게 빵을 파는 모습과 위층에 사는 Nick이 그의 가게가 아닌 건너편 가게에서 물건을 산 것을 알고 기분이 상하는 장면이 똑같이 나온다.

Unlocking the door, he let her in. The Polish dame complained he had kept her waiting too long in the cold. He sliced a roll for her, wrapped it, and rang up three cents.

At seven, standing by the window, he saw Nick, a new father, come out of the hall and run around the corner. Frank hid behind the paper and soon saw him return, carrying a bag of groceries he had bought in Taast's store. Nick ducked into the hallway and Frank felt bad. (p. 217)

이렇게 Frank가 Morris의 가게를 이어받고 그의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Baumbach는 Frank가 Morris의 죽은 아들을 대신한 대리아들이 되었다고 말한다. Frank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의 죄를 속죄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그는 완벽하게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된 것이다.

Like Morris, Frank becomes wholly committed to the store, sacrificing his energies to support Ida and Helen. Totally committed, he even gets up an hour earlier, as Morris had, to sell a three-cents roll to the Polish. In continuing Morris's life, Frank fulfills the possibilities of the grocer's actual son, the son who died while still a child. It is the least

Frank can do for the man he has wronged, and the most. In suffering for Morris and, in Morris' role, for all of us, Frank achieves his own redemption, becoming at last a wholly honest and good man.²⁰⁾

그리고 4월의 어느 날 Frank는 할례를 받고 유태교인이 된다. 이는 그저 유태인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의 일부라는 의미가 아닌 Morris처럼 Frank도 남을 위해 헌신하며 고통을 인내하며 살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One day in April Frank went to the hospital and had himself circumcised. For a couple of days he dragged himself around with a pain between his legs. The pain enraged and inspired him. After Passover he became a Jew. (p. 217)

이는 마치 나약한 인간이었던 Frank가 Morris의 희생과 Helen의 사랑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이탈리아계 미국인 Frank가 유태인 Morris를 만나 정신적으로 교감하고 도덕성을 계승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주인공 둘은 Zadovsky가 언급한 것처럼 모두 Shlemiel 인물로 겉으로 보면 나이, 종교, 도덕성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운한 삶을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Despite important differences of age, cultural background, and moral outlook,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Frank and Morris evident almost from the outset of the novel, for both, in their propensity to hard luck, strongly resemble the classical Jewish *Shlemiel*.²¹⁾

20) Jonathan Baumbach, "The Economy of Love," *Modern Critical Views: Bernard Malamud*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6), p. 27.

21) Josephine Zadovsky, *The Trial of Judaism in Contemporary Jewish Writing* (Chicago: Board of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1975), p. 110.

이렇듯, 작품 전개상 거의 언제나 Morris가 Frank를 도와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삶의 질곡을 헤맬 때마다 도탄에서 허덕이는 Frank를 도와주는 듯하지만 기실은 Morris 역시 Frank에게 여러 번 목숨을 구해 준 빚을 지고 있다. Ward와 함께 Frank가 Morris의 가게로 강도행각을 벌이려 간 당시 Ward의 폭행으로 쓰러져 목숨이 위태로웠던 Morris에게 Frank가 그에게 다가가 물을 떠다준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만남이자, 그들의 인연을 지속해주는 사건이었다. Morris가 가스중독이 되었을 때 역시 Frank로 인해 목숨을 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문방화범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게에 있던 Morris가 충동적으로 화재를 내려다가 오히려 그의 옷에 불이 붙어 위험에 처해있을 때 다가와 도와준 이 역시 Frank였다. 이렇게 둘은 혈연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 서로 도우며 끈끈한 정신적인 부자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작품 내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부자관계인 Pearl 과 Nat, 형사 Minogue와 Ward, Karp와 Louis가 등장한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아들들에게 도덕성을 가르치지 않는다. Pearl은 Nat를 법대에 진학하게 했지만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도록 했고, 형사 Minogue는 본인의 체면 때문에 돌아온 Ward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는다. 또한 Karp는 Louis가 몰래 가게 돈을 쓰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어차피 아들에게 그 가게를 물려줄 요량으로 Louis의 그릇된 행동을 굳이 바로 잡아 주지 않고 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Morris는 Frank가 빵을 훔쳐 먹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고, 돈을 몰래 훔치는 사실을 알았어도 오히려 자신을 탓한다. Frank가 가게를 털었던 범인임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Frank를 용서해준다. 다른 부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타인을 희생시키는 반면에 Morris만은 자신을 희생시켜 Frank를 감화시킨다.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에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부랑자였던 Frank는 유태인 Morris를 만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Morris의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아 도덕적인 성숙을 이르게 되었다. Malamud는 고난을 이겨내고 확고한 자아를 성립한 Frank를 작품에 그려냄으로써 모든 인간은 고난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III. 결 론

20세기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였다. 당시의 미국 문학이 이런 시대적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Malamud는 그의 작품들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만연한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이타주의와 휴머니즘을 주장하였다.

Malamud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태인은 특정 종교를 믿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인류의 상징이다. 이들은 정직하고 선량하지만 불운한 Schlemiel-Shlimazel형 인물이다. 초반부터 여러 면에서 미숙했던 주인공들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다. 그들에게 있어서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적이다. 그들은 삶 속에서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확립하게 된다. Malamud는 인간의 내면에 본질적으로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모든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공만을 추구 하지 않고 결국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선을 찾아냄으로써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Malamud가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이자 핵심적인 사상이다.

Malamud는 *The Assistant*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겪는 고난을 Frank와 Morris로 대비시켜서 역경을 이겨내고 이를 통해 도덕적 성숙을 이뤄내는 과정을 그려냈다. Morris는 러시아에서 American dream을 쫓아 미국으로 건너 온 유태인이다. 물질주의가 만연한 미국사회에서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유태인의 율법대로 정직하고 선하게 사느냐하는 고민에서 후자를 선택한 인물이다. 그는 식료품 가게에서 평생을 열심히 일했지만 점점 가난해지기만 할 뿐이다. 타고난 불운으로 평생 고통을 받으며 미국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에 타협하지 못하고 평생을 힘겹게 보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비심이 넘치는 인물로 유태인의 형식적이 아닌 참된 율법을 중요시 여김으로써 자신의 신념대로 살다가 결국 생을 마감한다. Morris는 자신의 가족 및 주위사람들은 인정해주지도 않는 도덕적인 신념과 자비심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항상 손해만 보고 살았다. 죽기 전 Morris 자신조차 자신의 삶은 헛된 것이라

고 말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세속적인 측면에서 보면 Morris는 실패한 가난한 유대인 노인일 뿐이지만 그자신도 깨닫지 못한 정직함과 자비심으로 인해 아직도 이 시대에 선이 존재함을 나타냈다. 이는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Malamud가 추구하는 진정한 인간상이다.

Frank는 가난하고 거리를 떠도는 방랑자 이탈리아인이다. 그는 뉴욕 빈민가에서 거의 망해가는 식료품가게를 운영하는 유대인 노인 Morris에 의해 선량하게 성격이 점차 변하는 인물로 독자에게 비쳐진다. 그는 St. Francis를 동경하지만 세속적인 부와 성적쾌락에 물든 그릇된 American dream에 젖어 있어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여 진정한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이런 그가 Morris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죄책감으로 Morris의 가게의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점차 그의 삶이 많은 변화를 겪는다.

작품 속에서 Frank는 하는 일마다 실수를 반복한다. 그는 죄를 뉘우치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른다. 그는 너무 나약하여 도저히 도덕적으로 희생이 불가능해 보인다. 처음에 Frank는 Morris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Morris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에게 감화를 받은 이후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 결국 그는 고난을 통해 정체성을 깨닫고 엄격한 도덕성을 확립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인간은 고난을 겪으면서 변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비록 Morris는 죽었지만 Frank가 Morris의 뒤를 이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Morris가 몹시 바라던 것 중 하나인 Helen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Frank역시 American dream을 위해 미국으로 왔지만 Morris를 만남으로써 성공 위주의 물질주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른 성격에 자비심 가득한 Morris의 삶을 존중하게 된다. Malamud는 Frank를 통해 인간이 고난을 통해 좌절하지 않고 이를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정적으로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는 장면은 종교적 의미보다는 Frank가 Morris의 삶처럼 앞으로 선하게 살 것이라는 상징이다. 거리를 방황하던 Frank가 Morris를 만나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Morris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고난을 지켜보고 그에게 고난을 줬던 Frank가 변화했다는 점에서 바로 Morris의 고난의 가치를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Malamud는 Morris를 이 시대의 이상적인 인간의 유형으로 창조하였으며, Frank는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그가 점점 이타적으로 변화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Morris의 정신적 아들로써 변모했듯이 사람은 누구나 현실과의 투쟁을 통해 부단히 노력하면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소설에서 Malamud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선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고난은 필수적이며 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삶의 한 과정임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다. 또한 끊임없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진정한 자아를 확립할 수 있다고 본다.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로 병든 현대사회에서 자아상실과 도덕적으로 황폐화된 인간들에게 진정한 인간의 존재방식은 자아발견을 통해 영혼을 회복하고 도덕적 가치를 지고의 선으로 여기고 이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 현대인들의 과제임을 주인공을 통해 작가는 제시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Abramson, Edward A. *Bernard Malamud Revisited*.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93.
- Baumbach, Jonathan. "The Economy of Love." *Modern Critical Views: Bernard Malamud*.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6.
- Bloom, Harold. *Modern Critical Views: Bernard Malamud*.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6.
- Field, Leslie A. and Joyce W. Field. *Bernard Malamud: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5.
- Handy, W. J. "The Malamud Hero: A Quest for Existence." *Fiction of Bernard Malamud*. Eds. Richard Astro and Jackson J. Benson. Corvallis: Oregon State University Press, 1977.
- Hassan, Ihab. *Radical Innocence: Studies i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1.
- _____. *Contemporary American Literature 1945~1972*.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73.
- Hays, Peter L. "The Complex Pattern of Redemption." *Bernard Malamud and the Critics*. Eds. Leslie A. Field and Joyce W. Field.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70.
- Hershinow, Sheldon J. *Bernard Malamud*. New York: Fredrick Ungar Publishing Co., 1980.
- Helterman, Jeffrey. *Understanding Bernard Malamud*.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5.
- Malamud, Bernard. *The Assistant*. New York: Penguin Books, 1957.
- Richman, Sidney. *Bernard Malamud*. Boston: Twayne Publishers, 1966.
- Solotaroff, Robert. *Bernard Malamud: A Study of the Short Fiction*. Boston:

- Twayne Publishers, 1987.
- Tanner, Tony. *City of Words*.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71.
- Zadovsky, Josephine. *The Trial of Judaism in Contemporary Jewish Writing*. Chicago: Board of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1975.
- 고지문. 『최근 미국소설론과 작품세계』. 서울: 동인, 1994.
- 권오경外. 『현대 미국소설의 이해』. 서울: 동인, 2002.
- 김유조. “버나드 맬러머드의 초기작 *The Assistant* 연구.” 『인문과학논총』 제33집. 서울: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pp.27-39.
- 김종운. 『현대 미국소설론: 두 세계 사이에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 정영섭. “*The Assistant*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성격분석.” 『부산산업대학교 논문집』 제7보. 부산: 경성대학교, 1986, pp.121-36.
- 정호영. “맬러머드의 『점원』 과 심리주의 비평.” 『인문학연구29집』. 광주: 조선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03, pp.235-57.
- 최기군. “Bernard Malamud의 *The Assistant*: 시련을 통한 정신적 갱생.” 『조선대 외국문화연구』. 광주: 조선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1993, pp.105-23.
- _____. “버나드 맬러머드(Bernard Malamud)의 휴머니즘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9.
- _____. 『Bernard Malamud의 소설연구』.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3.
- 한수현. “Bernard Malamud의 *The Assistant*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영어교육학과	학 번	20088051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이수연	한문: 李受娟	영문: Yi Suyeon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한국레이크빌 203동 1405호				
연락처	E-MAIL: leesuyeon84@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Bernard Malamud의 The Assistant에 나타난 자아실현 영문 : Self-realization in Bernard Malamud's <i>The Assistant</i>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11년 1월 8일

저작자: 이수연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